

모두 주연입니다

We Are All Main Characters

마태복음 25:14-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월 20일 설교

¹⁴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¹⁵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¹⁶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¹⁷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¹⁸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¹⁹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²⁰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²¹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²²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²³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²⁴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²⁵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²⁶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²⁷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 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²⁸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²⁹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³⁰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니라.

세 가지 비유

오늘 본문을 포함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처음 나오는 열 처녀 비유에서는 준비하는 게 슬기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신앙이 늦게 도둑처럼 올 수 있으므로 등불뿐 아니라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준비를 한다는 건 받은 달란트를 갖고 장사를 해 이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신앙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등불 들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비유는 준비하라는 걸 가르치고 준비하는 방법은 둘째 비유가 가르칩니다.

그럼 달란트를 갖고 장사를 한다는 건 뭘 한다는 말이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세 번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지요? 이걸 비유라기보다 첫째, 둘째 비유의 뜻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받은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은 곧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해 주고,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혈벤티는 사람은 입히고, 소외된 사람은 위로해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이런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달란트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재능과 맡기신 직분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걸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사랑의 열매를 맺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게 바로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슬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맡김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전파하신 이후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별명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영어로 텔런트지요. 뭘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연기하는 사람을 텔런트라 부르고 영어로는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본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삼십 킬로그램 쯤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같은 무게의 금 또는 은을 가리키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달란트는 화폐단위입니다. 금일 경우

요즘 돈으로 욕심만 불 정도, 은일 경우는 만 불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이 여럿 있는 걸 보니 꽤 부자인 모양입니다. 종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어 맡기고는 자기가 올 때까지 관리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말로 “금 다섯 달란트” 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어느 건지는 모릅니다. 금일 수도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 감추었다” 할 때 그 돈의 원문은 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욕심만 불이든 만 불이든 어느 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돈을 맡길 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돈은 잠재력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잠재력이지만 돈은 스스로 늘어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가만있어도 이자라는 게 붙습니다. 그걸로 장사를 하면 더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숨겨두고 가도 되는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은 뭔가 해서 돈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누어준 기준은 종 개인의 능력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했는데 요즘은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뜻이니까 헛갈립니다만 원문은 “능력대로”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한 일

종이 셋 나옵니다. 능력이 차이가 있었는지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 하나에게는 둘을, 나머지 하나에게는 하나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는 적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맡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처음부터 주인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뭘 바라시는지 압니다. 그걸 이루는 방법도 압니다. 대단한 종이지요? 그래서 주인도 가장 많은 달란트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 기간 장사를 해 주인이 맡긴 것과 똑같은 액수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사업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똑같이 열심히 장사를, 일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역시 자본금만큼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이 종도 가진 갔습니다. 그런데 간다는 말의 원문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와 다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간 건 부지런히 다녀 장사했다는 뜻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저 혼자 따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 곧 은화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은이니까 썩지는 않을 겁니다. 잘 숨겨 두었으니 일단은 든든합니다.

칭찬들은 두 종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열 처녀 비유처럼 여기서도 많이 늦습니다. 종들을 불러 뭘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돈을 그냥 보관해 달라고 맡긴 게 아니라 잘 활용하라는 뜻이었다는 게 드러나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보고합니다. “주인님, 다섯 달란트를 제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거창한 칭찬입니다.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너라.” 즐거움에 들어오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 막 9:43, 45, 47 비슷한 표현, 눅 22:40 시험에 들다, 눅 24:26 영광에 들어가야, 히 4:1 안식에 들어감)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두 달란트를 제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하고 숫자만 다르지 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종도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너라.” 방금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 한 칭찬하고 글자 한 자 안 빼고 똑같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액수는 꽤 차이가 나지만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받은 액수만큼 남겼으니 똑같다는 겁니다. 받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받은 그만큼 남기면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종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 차례입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만 남겨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겠지요? 그런데 “주인님!” 하고 부르더니 말이 달라집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에 주인님은 엄한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것 여기 있습니

다.”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못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흠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내 돈을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가 와서 내 것을 이자하고 같이 받게 했어야지.” 이 종의 문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인데 그 게으름의 원인은 못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못된 겁니까? 주인을 제 못된 마음으로 오해했습니다. 주인 면전에서 주인님은 엄한 분이러 했습니다. 엄격하다는 말이지만 내용을 보니 남의 것을 먹는 나쁜 사람이라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 걸 거두고, 씨를 흠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는 사람이니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 등쳐먹는 사람 아닙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막말을 왜 했겠습니까? 우선은 적게 받은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돈이라는 게 덩치가 좀 있어야 굴리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달란트를 하나밖에 안 주니 무시한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 오해가 주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주인을 종들을 부려 제 재산을 불리려 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종 된 제 신분을 망각한 거지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고되지요. 하지만 안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대신 주인은 종을 먹여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 종은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난다 하니까 아마도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맡깁니다. 게다가 저한테는 하나밖에 안 맡깁니다.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주인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온 뒤 보니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들을 부려 제 재산을 늘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많아진 재산을 다시 종들에게 맡깁니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하셨는데 다른 일을 맡기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두 배가 된 그 돈도 다시 맡기겠다는 뜻도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하셨지요? 주인의 즐거움이 됩니까? 재산 불어난 즐거움도 되겠고 충성스러운 종을 둔 즐거움도 되겠지요? 종도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갑니다. 주인은 종을 얻고 종은 재산을 얻은 거지요.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라 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돈은 불어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는 정부가 손을 써 많이 번 사람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적게 번 사람에게 복지 정책을 퍼 이 문제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으라 하셨습니다. 본디 주인 건데 왜 빼앗는다 하셨을까요? 충성했더라면 제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하셨지요? 게으른 종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신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마 21:43).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처럼 여기서도 벌써 밤이 되었지요? 밤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쫓겨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는 복지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쫓겨난 종을 가리켜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 하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면 뭐 하러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유익을 주면 주인이 얻은 그 유익을 함께 나눕니다. 다른 주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훌륭한 종을 두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종들은 수고해 얻은 열매를 주인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말은 달란트

능력에 따라 돈을 맡겼습니다. 능력은 뭐고 돈은 또 뭘까요? 보통 달란트 곧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데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능력 곧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신다 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은사라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직분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잘 다스리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장로로 세우십니다. 장로가 달란트지요. 열심히 일하는 재능이 있으면 집사로 세우십니다. 집사도 달란트입니다. 노래 잘 하면 찬양 팀으로 잘 가르치면 교사로 세우시고 밥을 잘 하면 식사 봉사 맡기십니다.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도 직분입니다. 재능은요? 남편 직분을 받으려면 우선 남자라야 되고 여자를 잘 어떻게 해서 나랑 결혼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재능이 있으니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직분입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위로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 된 것도 직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 직분도 없어진 겁니다.

일터에서는 직분이 더 분명합니다. 연구원이라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머리, 학력 이런 걸 보시고 그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내 자본과 운영 능력을 재능으로 보시고 개인사업이라는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회사원도 직분, 과장도, 부장도, 팀장도, 사장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직분이요, 주인께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은혜와 감사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달란트로 장사해 받은 만큼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달란트를 맡은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일까지 맡기십니다. 하늘로 가시기 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다음 보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거 다 내 것이 되지요? 주인이 시키신 일인데 그게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맡기십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둘째로는, 사람의 기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은 나는 적게 받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어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오해해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받은 달란트수에 무관하게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똑같이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걸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타고난 게 없다 한탄할 것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맡기느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지 말고 그저 맡기신 그만큼만 충성하면 됩니다. 많이 안 맡기셔서 불만인 사람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눅 12:48). 두려운 말씀입니다. 배우는 학생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더 멋있어 보이지요?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약 3:1). 왜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요.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잘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십니다 (마 10:41). 얼마나 쉽습니까? 불평할 게 아니지요.

감사와 충성

달란트 수에 관계없이 맡은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을 가장 긴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돌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빌리언 아니라 밀리언도 못 굴릴까? 나는 왜 좀 높은 자리 못 올라가고 늘 잔소리 들으면서 회사 다녀야 되나? 남들은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참 행복하게도 하던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불평하라고, 화가 치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안 해 하고는 팽개쳐 버리도록,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리도록 만듭니다.

옛날 에덴동산에서 간교한 마귀가 했던 질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하셨니? 이 질문 하나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하신 그 은혜는 못 보고, 대신 꼭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만 보게 만들고 참 알곡다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뭘니까? 가정에서도 있지요? 직장에 가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고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칭찬하실 주님, 그렇게 수고해 얻은 열매를 함께 나누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지난 주일 요셉의 생애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맡고 싶지 않은 달란트 아닙니까? 남의 아이 가진 여인과 결혼해야 되지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요, 이리저리 떠돌아야 되지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내 판단 다 접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의 달란트

달란트가 재주를 뜻하고 또 요즘은 연기자도 됩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맡았으니 우리도 다 연기자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연,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대, 곧 우리가 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현장에서는 엑스트라도 다 주연입니다. 혹 지금까지 엑스트라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그 하나 남은 것 아직 안 뺏으시고 기다려 주

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이제부터라도 주연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한 번 생기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달란트가 더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달란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기회가 오래오래 더 있을 줄로 속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여 우리 주님께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도 받고 다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즐거움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권수경 목사)